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3월 6일 (제836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속담은 진리다

나는 지난주일 중국에 파송중인 두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둘 다 대답이 시원찮았다. 나는 그들에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은, 길이 아닌데 가면 평생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즉 네 길이 아니면 그만두고 딴 길을 찾아보라는 말이다. 또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아닌 말을 하다 울무에 걸린 자들이 많기에 그렇다. 늘 즉답을 피하고 5번 생각할 것 10번 생각하고 말해라. 감정적이 아닌 의지적인 삶을 살아 인생길 춤추며 기쁨으로 살란 뜻이다. 주님도 맹세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하지 않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내 길을 가고 내 말만 해라. 주님처럼, 나처럼! 중국 선교사가 너희의 길인지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했다.

그렇다. 길이 아닌 길을 가서 고생하는 자들을 많이 본다. 목회, 사업, 정치, 직업, 결혼... 내 것을 찾는 자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다가 마음과 육체에 병을 안고 쓰러진 자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음식도 해롭고 달이 날진대, 하물며 평생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평생 남의 연장만 매일 빌려 쓰다 보면 내 연장은 녹슬고 만다. 그러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또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자. 나도 목회 초기, 순간 내뱉은 말 때문에 울무에 잡힌 경험 있다. 큰 대가를 치르려고야 입에 재갈을 물었었다.

인생에도 길도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요14:6). 이 길이 아닌 길로 걸으면 인생 뿐 아니라 영원세계까지 힘든 짐을 져야 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자. 속담은 진리다.

성공하기를 원하면 사람을 얻으라

목포에 네 번째 예수중심교회가 섰다. 바로 목포사랑교회다. 지난 2월 25일 목포사랑교회에서는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예배가 있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목포사랑교회 담임 장정 전도사와 입당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慈悲)는 사랑할 자(慈)와 슬플 비(悲)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 '저 사랑교회에 가니까 노인을 잘 섬기더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됩니다. 또한 사랑은 역지사지(易地思之), 곧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파보셨고, 외로워보셨고, 힘들어보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절대 오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까닭이 있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꿀을 따려면 꿀통을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핏뚱어셔도 안 되고, 감정대로 야단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표정관리, 언어관리를 잘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대기업들이 물건에 하자가 발견되면 서비스는 물론 리콜까지 실시하지 않습니까? 검은 콩과 흰 콩을 섞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골라내는 일은 어려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장 전도사는 오늘의 계란을 먹기보다 내일의 암탉을 기른다는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에 급급하지 말고, 멀리보고 크게 생각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잠을 자면 누구나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



목포사랑예수중심교회 창립예배(2016년 2월 25일)

사랑은 '~ 때문에 사랑'이 있고,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고 미모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돈이 없어지고 명예와 미모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불구하고'의 사랑이 절실한 겁니다. 우리는 '~불구하고'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주의 종은 우리 주님이 낮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병든 성도, 가난한 성도,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라도 불구하고 더욱 섬기고 사랑하면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

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인성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지에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불신과 미움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뒤틀린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뒤틀린 나무가 없으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눅6:43~44)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여 모르고 성도들을, 이웃을, 가족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거든 모르는 척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세요.

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몸소 행하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이 교회의 부흥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장 전도사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싫어하고 대해가 될 수 없고, 흙을 싫어하고 태산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을 안수해주셨다



목포사랑예수중심교회 전경



목포사랑예수중심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며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7:20~37)



철저하게 대비하고 점검하라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어느 누가 나라가 부도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1997년, 우리나라가 정말 부도가 났었습니다. 다들 설마 했지만 우리는 힘든 IMF시절을 겪어야만 했고, 또한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이 건너다니는 한강의 대교, 누가 그것이 무너지리라 생각했었습니까? 그러나 출근길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누가 백화점이 무너지리라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뉴욕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리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설마,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설마가 사람을 잡을까요? ‘설마’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 이상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요행이나 바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종말론이지요. 그 주제가 무엇이나면 바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입니다. 25장에 등불은 있으나 기름을 가득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래도 설마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앞에 다시 내놓을 때, 다섯 달란트 남긴 자처럼 칭찬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설마 큰일 나겠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을

하시라 하지 마십시오. 설마가 사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눅17:34~35)고 하신 것을 보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50%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설마 내가 매주일 봉사하는데, 내가 성가대에 서는데, 헌금도 꼬박 꼬박 하는데 지옥에 가라 생각하지 말고, 이 설마를 잡아 확실하게 천국티켓을 따야 합니다.

설마를 잡는 방법은 ‘대충’이란 군을 잡는 것입니다. 대충

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할 때 설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름이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달란트를 대충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란트를 활용할 때 주님의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벧후3:3~4)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팬날 곧 오신다 했지만 어디 오셨느냐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벧후3:11~12).

어디 이것이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지난 주말 미국의 땅끝예수전도단 회원이 찾아와 만났는데, 그가 저를 붙잡고 울면서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일은 남에게나 일어날 줄 알았지 자신에게는 설마 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대기업이 무너지겠어?” 하며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외치던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이 순간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는 곧 점검인데 말입니다. “설마 내 자식이 자살하겠어?” 하고 아이들을 대충 살피다 간 썰을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게겠어?” 하고 몸

에 해

로 운 것을 먹고 마시면 설마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내 자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설마를 잡으려면 남을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해야 합니다. 저는 금식기간 중 창세기를 다시 읽다가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에덴동산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으셨고, 다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죄를 추궁하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3:12)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주신 하나님 탓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아담은 ‘설마 무슨 일이 나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삶의 수고로운 고

통도 함께 겪게 하셨습니다(창3:14~

19). 만일 아담이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신의 부주의를 뉘우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

경영은 곧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이다

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삼상15:20~21). 백성 탓을 한 것입니다. 얼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탓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설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차 없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로잡힌 아각도 제사장 사무엘 앞에 끌려나오게 될 때 ‘설마 제사장이 사람을 죽이겠나?’ 생각해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삼상15:32) 했지만, 설마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탓하고 돌아보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텐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에텐이 찾아오고, 제2의 에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느니라”(렘29:11~14).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 이 설마에 잡히지 않도록 나의 영·혼·육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날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설마 설마하다가 설마에 잡힌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으리라”(마25:30)는 무서운 판결을 받고야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운 자들은 주님의 원편에 설 줄도 몰랐고, 설령 원편에 섰다한들 설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25:41)고 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내가 지옥에 가라?’ 하십니까? 위에 세 경우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미 어두운 곳, 영벌에 서는 게 정해져 있어 설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마 성령 충만함을 조금 잃었다고 지옥에 가라, 설마 달란트대로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지옥에 보내시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설마 영벌에 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수요예배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객원컬럼::

::From Internet::

정의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육신은 땅에 속해 있다. 곧 지상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늘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속한 이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바사제국의 제2인자 하만은 왕의 모든 신복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도록 하는 과시욕과 만용을 부렸다. 그 결과 모르드개 한 사람을 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유다민족 모두를 멸하려는 엄청난 학살계획으로 발전한다. 이에 온 유다인이 곡읍하여 부르짖기에 이르고 모르드개와 에스테르도 밤낮으로 금식을 한다. “에스테르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4:15~16). 바로 이 성경구절에서 동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한 에스테르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사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에스테르와 같이 나라와 민족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왔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까지 일제치하에서 희생된 많은 그리스도인과 공산치하에서 순교당한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개인주의의 편만함과 이념의 혼재가 극심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

는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국가에 고립되어 사는 이방인이 아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믿는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를 더욱 올바르게 이끄는 힘이 된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동시에 육체 가운데 있는 지금,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 결국 후손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시국이 엄중하고 선거철을 맞아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 2:1~2).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네 이웃을 돌아보라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판사가 물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그만...”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을 두고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 한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다. “다만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아 방청석 모두가 지갑을 열었다. 모두 57달러 50센트였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고,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다.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피오렐로 라파디아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28:27)는 말씀, 기억합시다.

예수중심편집부



::To Be Succeeded::

::귀를 기울이세요::

겸손의 미학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일명 직장 처세술을 조사한 결과 1위가 ‘겸손함’이었다고 한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대를 높임으로 완성된다. 상대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내어 헌신할 줄 알기에 주변을 살린다.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라 부족함이 없었지만 크림전쟁을 비롯한 여러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나이팅게일, 일평생 목숨을 바쳐 아프리카 오지에서 헌신한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처럼 말이다. 이들은 환영 인파가 몰린 비행장을 일부러 돌아가는가 하면, 열차에 4등석이 없어 부득이하게 3등석을 이용할 정도로 철저히 겸손한 삶을 살았다. 겸손한 삶은 그 자체로 이미 타인의 모본이 된다. 겸손은 또한 개인과 기업, 국가로 교만하여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어 장치의 역할을 한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꺾고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불타는 카르타고 성을 보며 흘린 눈물은, 적국을 물리쳤으니 이제는 쫓다고 자랑하다 혼돈과 내분으로 멸망할

조국의 미래를 예견함으로 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로마제국은 이후 사치와 향락, 내분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눈엣가시 같기만 했던 카르타고가 실상은 로마의 타락과 멸망을 방지하는 방부제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면 일제 강점기 조만식 장로의 회개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 어느 주일날 사람을 만나느라 예배에 늦게 도착한 조 장로에게 한때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로부터 서서 예배를 드리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주여,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시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진실로 겸손한 그의 기도는 온 교회 성도의 뜨거운 회개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그 겸손으로 그는 한국 정치사와 교회사에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겸손은 결국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영혼의 보약이요, 자기분야에서 인정받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자신감을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다.

이국진

joyfuljina@hanmail.net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스페인의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 이 도시에는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한 건축가의 작품을 보기위해 이 도시를 찾는다. 그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로 그가 건축한 카사 밀라, 카사 바트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구엘 공원 등 7개의 건축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류머티즘을 앓고 있어 많은 시간을 자연을 보고 관찰하는데 보냈다. 훗날 이 시간은 그가 자연을 닮은 설계와 건축물 제작에 기초가 된다. 그의 건축물 중에서도 현재 130여 년째 지어지고 있으며, 미완성 건물임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다. 이는 ‘성(聖) 가족’이란 뜻으로 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당이다.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기로 한다. 성당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탑과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 첨탑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 영광을 나타내는 세 개의 파사드(건축물의 출입구)로 구성되어 있

다. 가우디는 74년의 인생 중 40여 년을 성당 건축에 할애했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과 유년시절로 표현된 하나의 파사드만 완성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 성당 전체를 완성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신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후대 건축가들을 위해 설계도와 모형을 남겼다. 가우디의 철학과 그의 건축물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조급함’은 없었나 생각해본다. ‘편의점 패스트푸드’ 같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패스트 응답’으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강요하진 않았는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때를 쓰곤 한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130여년의 공사를 끝내고 2026년에나 완공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기도에 가장 적당한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 때까지 조급함을 버리고 그 분의 때를 기다리자. “비록 더딜찌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합2:3).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제가 애 쓴 것 없고, 제가 한 일이 없고, 제가 이룬 것이 없기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총회장 목사님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창립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보세요? 이초석 목사님이 목포에 오신다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초석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네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이초석 목사님이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워요. 너무 기대 돼요.”

창립예배 현수막을 보고 전화하신 어떤 성도분의 말씀입니다.

“이초석 목사? 알지. 잘 알지. 능력 많잖아. 그 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할머니들에게 창립예배 오라고 전하는데 귀동냥으로 들은 옆 사람들이 “정말 이초석 목사님 오세요? 꼭 같게요. 예전에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창립준비를 하던 우리에겐 정말 신선한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목포역, 상동, 삼호중공업, 송광... 이 피켓들 뒤로 줄지어 온 양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몽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볼 날을 꿈꾸어봅니다.

2015년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듬뿍 받은 은혜와 감격을 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어있던 옆 사무실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교회는 14평 남짓, 1층 조립식 패널 사이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우리 예배시간은 옆 사무실에서 게임소리가 들렸고, 가요소리가 들렸고, 담배연기를 맡으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온 것입니다. 저는 새 성전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 이런 환경을 찾는 저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에 그런 환경은 없을 겁니다. 지하나 시 외곽 변두리나 찾아보십시오.”

정말이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수없는 갈등을 했습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수없는 번뇌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연히 교회 임대 현수막을 봤고, 그것이 중심가에 있는 농협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 고가 높아 아주 좋았고 적어도 5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너른 장소였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의 형편으로는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 교회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농협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입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이 임대계약조건이 어렵습니다.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

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교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계약조건이 너무 파격적이라 이사회에서 승인이 날 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사회에 새 임대계약을 올렸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통과시키셨고, 제가 처음에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농협을 통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영혼들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설레는 꿈을 가지고 또 기대하며 꿈을 꾹봅니다.

목포사랑예수중심교회 장정 전도사

강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마라

현대판 욕이 있다. 바로 '강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는 책의 저자, 김상호 장로다.

그는 충북 보은군 구병리 출신으로 그곳에서 일평생을 지냈다. 온 마을이 산신을 섬기는 마을에서 그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첫해에 무려 자녀 여섯을 잃는다. 하나 묻고 나면 하나 묻고, 또 하나 묻고 나면 다시 하나를 묻었다. 여섯째 자녀를 묻고 기가 막혀 통곡을 하다 정신을 잃게 되는데, 그의 영

혼이 빠져 나가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된다.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천국에서 만난 그의 자녀들이었다. 자기 손으로 묻었던 자녀들이 천국에 환한 얼굴로 뛰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풀었다. 그리고 그는 지옥도 보았다.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아버지도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고통을 체험하고 돌아와 '강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를 가훈으로 삼고 일평생 예수를 위해 산다.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충성만 있었다.

그는 마을에 교회를 세운다. 혼자서 백리 걸어 자재를 사서 짊어지고 오고, 혼

자 교회를 짓느라 다치고 지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넉넉히 이를 완수한다. 동네사람들이 다들 자식을 한꺼번에 잃더니 정신이 나갔다고 쫓쫓 혀를 찾지만, 그는 이미 경험한 바이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

천국에서 본 그의 상은 구멍 뚫린 양말 열 켤레와 쌀가마니가 전부였다. 그는 그때의 부끄러움을 잊지 못하고 평생 양복 한 벌 사 입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을 위해 된다. 그는 1원 하나 떨어지지 않는 십일조와 주일성수는 꼭 본 교회에, 그리고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하며, '예수를 믿으려면 김상호 장로처럼 믿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을 살았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눅16:27~28). 매일 파티를 하며 살던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평생 부자 집 앞에서 강통으로 빌어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나사로처럼 강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한다.

지옥! 절대 피해야 한다. 그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옥의 문은 닫힌다. 강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치질, 꼭 수술이 필요한가?

50대 여성인 A씨는 대변을 볼 때마다 항문 주위가 붓는 것 같고 무지근하며, 간혹 피가 묻어났다. 어떤 날은 증상이 심해 항문 부위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했고, 그런 날에는 변을 본 후에도 덩어리가 들어가지 않아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병명은 치질이다.

치질은 항문 입구에서 항문 안쪽 치상선에 이르는 항문관이라는 곳에서 시작된다. 항문관에는 혈관 다발을 비롯해 여러 조직이 합쳐져 만들어진, 일명 '쿠션'이 존재한다. 이 쿠션은 대변이 항문관을 통과할 때 가해지는 압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심한 압박이 가해지면 항문관의 혈관 다발에 피가 몰려 비정상적으로 확장된다. 또한 항문을 지지하는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쿠션이 밖으로 돌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치질 또

는 치핵이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치질이 생기는 것일까? 항문직장 구조와 배변의 역학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배에 힘을 많이 주는 습관이 있는 사람,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로 인해 변비가 있는 사람, 그 밖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치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치질은 돌출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되는데 단계에 따라 치료방법도 달라진다.

1도: 항문 밖으로 돌출되는 덩어리는 없으나 가끔 출혈이 동반된다.

2도: 대변을 볼 때 항문 밖으로 덩어리가 돌출되었다가 저절로 들어간다.

3도: 대변을 볼 때 항문 밖으로 돌출된 덩어리를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간다.

4도: 대변을 볼 때 돌출된 덩어리를 손으

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고 괴사와 통증이 유발된다.

1~2도의 치질에서는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도록 식이조절을 하고 분변완화제 등의 약물로 변비를 치료하며 잘못된 배변습관을 교정하는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다. 2도의 대형 치질과 3도 치질에서는 고무밴드로 치핵을 묶어주는 환상고무결찰술이나 치핵동맥을 실로 묶어주는 치핵동맥결찰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도의 대형 치질 및 4도 치질에서는 치핵절제술이 이루어진다. 치질수술에서 걱정되는 것은 수술 후 통증과 항문 협착 및 괄약근 손상과 같은 부작용이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가능하면 초기에 잘 치료해서 수술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